

본문언어학적견지에서 로어문장번역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장 미 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학생들이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함께 높은 외국어실력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422페이지)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실지로 써먹을수 있게 배워주는것이다.

이 글에서는 본문언어학적견지에서 로어문장을 번역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본문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통신적의도에 맞게 해당 언어의 문법규칙에 따라 언어적단위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련결시키면서 만들어내는 진술문들로 이루어져있다.

로어본문의 전일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것은 본문을 이루는 진술문들 사이의 형태적련계와 의미적련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횡적구조이다. 로어본문의 형태적련계가 접속사, 대명사, 반복법, 시간표시법들을 비롯한 언어수단들과 수법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로어본문의 의미적통일은 서술의 논리적순차와 함께 논리적계사들, 어순바뀔, 품사전성, 보충법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로어문장번역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본문의 형태적련계와 의미적련계에 의하여 이루어져있는 원문의 주제부-설명부구조를 보존하는것이다.

로어본문은 주제부와 설명부구조로 의미적통일을 이룬다. 주제부와 설명부의 호상관계 즉 통신적성분화는 개별적인 진술문들의 의미구조에서도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로어진술문은 억양이나 어휘론적수단 혹은 문장론적수단들에 의하여 주제부와 설명부로 성분화된다. 일정한 정보는 억양이나 어휘론적수단, 표현성이 강조되지 않은 단순한 진술문에서 마지막자리에 설명부를 놓는것과 같은 문장론적수법 등 여러 수법들에 의하여 표현될수 있다. 로어본문에서 서술의 순차성과 련관성은 많은 경우 나란히 놓여있는 진술문들의 주제부와 설명부가 어떻게 호상 련관되어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예: Николай попытался открыть дверь. Дверь не открывалась.

(니콜라이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우의 실례의 첫 문장에서 《попытался открыть дверь.》(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라는 설명부가 두번째 문장에서는 주제부로 설정되였다.

이외에도 일정한 주제부-설명부구조는 본문의 한 부분에만 국한되던 정보가 다음에 오는 내용의 출발순간(주제부)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면서 전체 본문내용을 이루게 한다. 실례로 여느때와 다르게 날씨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묘사할 때에는 이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통보가 뒤따르게 된다.

로어문장번역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문맥에 따르는 진술문의 보충적정보들을 충분히 반영하는것이다.

로어진술문을 이루는 언어적수단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언어적수단들

의 일정한 구성요소들만 진술문의 정보전달에 참가하고 일부분은 없어진다. 그리하여 번역문에서 매 진술문의 내용은 진술문에 들어가는 단위들의 가능한 모든 의미들을 합한것보다 더 빈약해지는 반면에 언어적단위들의 의미요소들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

매 의미요소들이 개별적인 대상들의 특성과 부류, 과정 혹은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면 그것들의 결합은 옹근 하나의 정황을 묘사하면서 일반통신적기능을 실현하게 한다. 결국 번역과정에 진술문의 내용은 그것을 이루는 단위들의 총체적의미보다 보다 큰 정보적인 가치를 가진다.

예: Вчера вечером Николай срубил дерево, которое росло перед нашим окном.

(어제 저녁에 니콜라이는 우리 창문앞에서 자라는 나무를 베어버렸다.)

우의 실례문장은 일반류형의 문장으로서 행동의 주체와 객체, 시간과 장소를 지적한다. 이 진술문은 주제부-설명부의 완전한 구조를 가지며 누가, 어디서, 언제,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는 의미들을 담고있다.

진술문은 그자체로써는 진술적내용을 담지만 교제의 구체적인 환경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하여 교제적환경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한다.

임의의 교제환경에서 전달되는 정보자료를 이해하는 정도는 교제자들마다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제자들은 진술문의 교제적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일성을 이루는 의미적진술문들로 충분한 교제를 나눌수 있는 상세한 판단이나 대화본문을 생각한다.

진술문의 언어적내용이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거나 혹은 교제자가 필요한 언어지식과 배경지식이 없는것으로 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진술문의 의미요소들을 옳게 해석할 가능성을 잃게 하며 결국 진술문의 기능적의미를 원만히 인식할수 없게 한다.

진술문 《Вчера вечером Николай срубил дерево, которое росло перед нашим окном.》에는 니콜라이가 어떤 사람이며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그것이 집앞의 공지를 아름답게 하거나 창문을 가리운다는것, 니콜라이가 그것을 벨 권리 혹은 근거가 있는가, 나무를 베는데 품이 많이 들었겠는가 등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진술문은 어떤 경우에는 니콜라이에 대한 찬양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질책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그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할수 있을가 하는데 대한 놀람으로 해석될수 있다. 진술문의 이러한 구체적인 문맥적의미는 언어교제행위의 기본내용으로 되며 따라서 번역에서는 보충적인 정보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로어문장번역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논리적류사성에 기초하여 원문의 은폐된 의미를 원만히 재현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로어본문의 은폐된 의미는 그것이 생겨나는 방식뿐아니라 교제자들이 그것을 지각하는 정도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로어문장이 가지고있는 은폐된 의미는 구체적인 문맥적의미와 문장의 언어적내용과 련관되어있다.

구체적인 문맥에서 로어문장은 보충적인 의미를 더 암시하여 나타낼수 있다. 진술문 《Я иду в школу.》와 같은 단순한 문장은 《때문에 나는 지금 바빠.》, 《난 이제 아이가 아니다.》, 《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소.》 등과 같은 의미를 암시할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진술문을 이루는 언어적단위들과는 미약하게 련결되어있지만 전반적이며 구체적인

교제행위에 고유한 의미적특성을 이룬다.

로어진술문을 이루는 언어적단위들의 구체적인 의미들은 문장의 언어적내용과 직접 연관되어있다. 여러가지로 나타나는 의미들의 총체는 교제에서 보충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며 본문의 부분을 이루는 언어적요인에 의하여 정해지기때문에 본문이 담고있는 내용은 본문의 각이한 위치에 일정한 문장을 삽입한다 해도 그대로 보존된다.

일상교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대상적 및 논리적성격에 따라 차이나며 그에 따라 보충적의미가 생긴다. 이러한 의미들로서는 대상적동일성에 의하여 암시되는 보충적의미(《повернуть ключ в замке(열쇠를 돌리다)》- 문을 잠그다), 논리적결과에 의하여 암시되는 보충적의미(《Он пробежал 100 метров за 8 секунд.(그는 8초동안에 100m를 달렸다.)》- 세계기록을 훨씬 롱가하였다.), 상징적표현으로 암시되는 보충적의미(《Он кивнул головой.(머리를 끄덕했다.)》- 동의하였다.), 형상적표사로 암시되는 보충적의미(《Он на нее пылинке сесть не дает.(그는 거기에 먼지가 앉지 못하게 한다.)》- 몹시 살뜰히 보살핀다.) 등이 있다.

구체적인 교제행위에서 정보수집자가 때로 전체 본문내용의 한 부분만을 완전히 리해하는것과 함께 은폐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문맥의 의미를 해석할 때 대상에 대한 언어적내용을 문맥적의미와 호상 연관시키지 못하며 문장의 언어적내용을 부분적으로나 혹은 완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따라서 로어문장번역에서 본문을 이루는 문장의 구체적이며 문맥적인 의미, 언어적단위들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논리성을 보장할 때 원문의 의미가 원만히 전달된다.

로어문장번역에서 원문의 언어적내용을 원만히 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장의 언어적단위들의 의미내용을 각이하게 하면서도 항구적인 의미는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번역실천에서 원문의 내용은 개별적인 언어적요소들을 떼어버리거나 보충하면서 각이한 등가준위에 의하여 번역이 이루어진다. 지어 같은 언어에서도 번역자에 따라 문장의 언어적내용은 항구적인 의미를 보존하면서 각이하게 표현될수 있다. 아래의 실례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하나의 정황에 대한 로어문장들에서 개별적인 단어들의 의미요소들, 문장론적구조들의 의미요소들, 문장에서 주어진 환경의 징표들이 달리 표현된다.

례: Английские власти устроили суд над восставшими солдатами.

- 영국정부는 봉기군에 대한 재판을 조직하였다.
- 영국정부의 주도밑에 반란군병사들에 대한 재판이 조직되었다.
-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반란군참가자들은 영국재판소에 넘겨졌다.

일부 문장들에서는 공통적인 의미요소들이 나타나는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서술되는 환경자체들이 차이나나.

실례로 《Не совершай опрометчивых поступков.》, 《Семь раз отмерь, один раз отрежь.》, 《Береженного и бог бережет.》, 《Сначала хорошенько подумай.》, 《Не спросясь броду, не суйся в воду.》, 《Горячая голова до добра не доведет.》 등과 같은 문장들은 《신중하게 처신하다》의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있으며 문장 《Ты поступил совершенно правильно.》, 《Молодец!》, 《Вот это да!》, 《Дай я тебя расцелую!》, 《Нет каков, а?》 등은 찬동의 공통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각이한 형태의 의미요소들은 원문과 번역문들에서 호상 등가적인 원칙에서 문장들의 내용적인 측면들을 표현할수 있다.

로어문장번역에서 원문의 언어적내용을 원만히 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원문의 은폐된 의미가 등가적으로 재현되게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들에 원문의 언어적내용에 대한 등가적재현에는 본문의 은폐된 의미도 포함된다.

번역문과 원문의 의미사이에 등가적관계는 여러가지로 표현될수 있다.

첫째로, 원문의 표현된 의미와 은폐된 의미가 번역문에서 언어적으로 그대로 재현될수 있다.

례: Я не из гордости это говорю: я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знал, куда голову преклонить.(내가 자존심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네. 사실 난 어디에 인사해야 할지 몰랐지.)

둘째로, 원문의 표현된 의미와 은폐된 의미가 번역문에서 언어적으로 수정될수 있다.

례: Ведь я тебе ни копейки не дам, хоть ты тут вверх ногами предо мной ходи. (네가 내앞에서 무릎꿇고 빌어도 한푼도 주지 않겠다.)

А это правда, что вот родитель мой помер, а я из Пскова через месяц без сапог домой еду.(그러나 이건 사실이요. 바로 여기에서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달 지나서 나는 빈털털이가 되어 뽀스코브에서 집으로 왔어.)

셋째로, 원문의 표현된 의미와 은폐된 의미가 번역자의 해석에 따라 번역문에서 달라질수 있다.

례: Взял меня родитель и наверху запер и целый час поучал.

[부친은 나를 옷층에 가두어놓고 자물쇠를 잠그고 온종일 벌을 주었다.(혹은 매질하였다, 혼시하였다.)]

로어문장의 은폐된 의미와 문장의 언어적내용의 관계는 번역에서 원문의 구조를 보다 자주 변경시키게 하며 이로 하여 개별적이며 문맥적인 의미가 숨겨지게 된다.

우리는 로어문장번역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원서들을 자유자재로 볼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